

냉동피자 패러다임 바뀌나... 화덕 특유 불향·풍미 '뽀뽀'

오뚜기 '화덕style 피자' 출시기념회

페페로니아볼라, 트러플풍기 2종 가정 내 도구로도 전문점 수준 완성 메뉴·품질 개선 '프리미엄화' 집중

국내 냉동피자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오뚜기가 '화덕style(스타일) 피자' 2종을 출시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냉동피자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HMR 수요가 늘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 해당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시장조사업체 칸타에 따르면 오뚜기는 냉동피자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오뚜기는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신제품 '화덕style 피자'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오뚜기는 1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이



오뚜기는 1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이탈리아 음식점 마리오네에서 '화덕style 피자'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오뚜기

탈리안 음식점 마리오네에서 '화덕style 피자'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페페로니아볼라 피자 ▲트러플풍기 피자 등 신제품 2종을 현장에서 조리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며 제품의 특징을 알렸다.

새롭게 선보인 '화덕style 피자'는 직화 오븐에 구워 도우의 쫄깃한 식감을

살렸으며, 화덕 특유의 불향과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잘 숙성된 도우를 고온에서 구워낼 때 생기는 '에어버블'은 피자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해준다.

이 가운데 '페페로니아볼라 피자'는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와 짭짤한 페페로니를 듬뿍 넣은 제품으로, 화끈한 스파이스 소스를 더해 매콤하면서 개운한 뒷맛을 자랑한다. 함께 선보인 '트러



오뚜기 화덕style 피자 2종

플풍기 피자'는 모짜렐라 치즈에 양송이, 새송이버섯을 더해 풍부한 식감을 살렸으며, 진한 트러플 풍미의 부드러운 머쉬룸 소스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한다.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오븐 등 가정 내 조리도구를 활용해 화덕 없이도 전문점 수준의 피자를 완성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올리브 오일, 타바스코 소스 등을 후첨해 즐겨도 좋다.

오뚜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식 수요가 증가하고,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냉동피자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만

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독보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화덕style 피자'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냉동피자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오뚜기는 같은 해 BASIC 피자 4종(불고기, 콤비네이션, 6포르마지, 올미트콤보)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뒤이어 1인 가구를 겨냥한 7인치의 'UNO 피자', 간편하게 즐기는 '떠먹는 컵피자' '사각피자' 등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뚜기는 냉동피자 시장 선두주자로서, 그간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력으로 냉동피자 맛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광과 도우에만 차별점을 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더 나아가, 메뉴 및 품질을 개선한 '프리미엄화'에 집중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변화를 리드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문화마케팅으로 유럽 적신다

피렌체 영화제 후원 등 문화행사 지원 참이슬 등 현지인 대상 시음부스 운영

하이트진로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인 대상의 문화 행사 지원에 나선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시음행사를 열어 참이슬 체험 기회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의 2021년 유럽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JIN 엔터테인먼트가 독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 주최하는 클럽이벤트 '코리아 나잇'을 후원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뮌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15개 도시에서 35회에 걸쳐 진행되며 클럽 내 참이슬후레쉬와 에이슬리시즈를 판매하고 SNS를 활용한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 현지 슈퍼마켓 체인 입점도 확대 중이다. 올해 참이슬과 에이슬리시



지난 4월 8일 열린 제20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현지인들이 청포도에이슬을 시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즈는 독일 1위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와 세계 11위 유통업체 메트로의 일부 매장에 입점 완료했으며 에데카 전역 매장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는 '제20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의 공식후원사로 참여했다. 개막식 리셉션에서 음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과일리큐르를 제공하고 시음부스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현지 레스토랑과 협업한

푸드페어링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 베스트 50 바'에 오른 '쓰리시츠 바'와 함께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로 카테일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미술랑 스타쉐프인 '주원'의 요리와 최고의 조합을 자랑하는 '진로카테일'을 제공하는 푸드페어링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10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젊어진 홈플러스, 온라인 시장서 '펄펄'

예년 동기 대비 온라인 매출 120% 신장

홈플러스가 2030세대 공략을 위해 트렌드에 민감한 같은 세대 바이어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MZ 마음은 MZ가 잘 안다'는 기조 아래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MZ 바이어들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2030세대 바이어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2030세대의 수요를 포착해 큐레

이션 함으로써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이 예년 동기 대비 약 120% 신장했다.

홈플러스는 ▲홀리빙 ▲일상용품 ▲먹거리 등에 2030세대 바이어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바이어들과 같은 나이대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트렌드에 걸맞은 상품군을 적극 배치했다.

집밥, 홈술 트렌드를 타고 먹거리 상품도 약진했다. 실제로, 즉석조리식품인 텔리, 냉동·냉장 간편식을 아우르는 신선가공 품목은 각각 430%, 11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양식품, 그룹 내 제조사업 통합

삼양내츄럴스 제조부문 양수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의 농산물 공급 및 후레이크 제조사업 부문을 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양식품은 라면 제조 공정의 원료 공급부터 일관체계를 갖춰 글로벌 품질 관리는 물론, 그룹 내 제조 사업을 통합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삼양내츄럴스의 제조 부문을 양수하

기로 결정했다. 5월 1일자로 양수가 이뤄졌으며, 양수가액은 348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삼양내츄럴스는 제조사업 부문 없이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을 관리하는 지주사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삼양식품은 제조업 기반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삼양식품은 이번 사업 양수를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 준공에 맞춰 글로벌 품질 체계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선제적 방안임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비비고 치킨&고수만두' 국내 한정 판매

CJ제일제당 美 시판만두 매출 1위

미국에서 'K-만두'의 위상을 높인 비비고 만두가 국내 소비자들을 만난다.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비고 치킨&고수만두'를 국내에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비비고 치킨&고수만두'는 현재 미국 시판만두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대표 인기 제품으로, 닭고기와 고수를 선호하는 미국 현지 소비자를 타깃으로 2009년 출시됐다.

CJ제일제당은 대중성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비비고 치킨&고수 만두와 코리안 BBQ만두/CJ제일제당

반영해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인 MZ세대를 타깃으로 와디즈 펀딩을 통해 제품을 선보인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美 프로농구팀 LA레이커스 유니폼 콘셉트를 차용해 기존 비비고 만두와 차별화를 뒀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롯데마트 상품 당일배송

11번가가 17일부터 롯데마트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11번가의 장보기 서비스는 현재 이마트몰, 홈플러스, GS프레시몰의 당일배송 서비스와 SSG닷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번가는 이번에 롯데마트 당일배송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e커머스에서 유일하게 국내 대형마트 모든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롯데마트 당일배송은 전국 70여 개 롯데마트 매장과 전용배송센터를 통해 약 3만여 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오가닉' 신제품 2종 출시

'크니쁘니' 캐릭터로 더 유명한 롯데칠성음료의 어린이 주스 브랜드 '오가닉'이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오가닉 과일워터 사과&배, 복숭아&푸룬' 2종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과채주스 라인

업 확대에 이어 물 대용으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과일워터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 어린이 음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오가닉 과일워터 사과&배, 복숭아&푸룬은 최소 3년 이상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유기농 야채와 과일로 만들어졌다.

/신원선 기자